

회계학 교육의 환경과 지향점

송인만

성균관대 회계학과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에서 회계학 교육은 경영학 및 기타 경상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4년제 주요대학에서 독립된 회계학과가 설치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약 50여 개 대학에서 회계학과가 독립된 학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재학생수가 약 15,000명에 이르는 등 회계학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발달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계학 교과과정이나 회

계학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¹⁾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양자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회계학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검토하여 보고, 현재 회계학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회계학 교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회계학 교육의 목표

회계가 기술(art)이나 과학(science)이나에 대한 논쟁이 있다. 종전에는 '회계는 기업의 사상과 거래를 기록, 분류, 요약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로 인식되었다. 사실상 회계학

1) 회계학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회계학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원정연, 1988, 회계), 『회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199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업윤리와 회계교육』(최상문, 1991, 한국경영학회), "회계학전공자의 행동적 특성이 전공집중도와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조현연, 1993, 『회계학연구』), "회계분야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혁·송인만, 1993, 『회계학연구』) 등이 있다.

은 실무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회계의 목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 더욱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즉, 회계는 단순히 계산적인 기술적 학문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과학으로서 위상을 찾아나가는 추세이다.

회계학 교육의 목표는 회계가 담당해야만 하는 전문분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사회에서 회계가 담당해야만 하는 구실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회계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사회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자원에 대한 요구는 무한정하다. 따라서 희소성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자료가 회계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② 산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특정 회계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회계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③ 고도로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사회의 각 기능과 책임이 특정 집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소유자는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회계는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회계학 교육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자로서,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업이 작성한 재무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감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계학 교육은 위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제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양으로서 회계개념을 교육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3. 회계학 교육의 환경

회계가 그 목표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회계는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회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며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회계로부터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회계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으로 대표되는 회계실체의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객관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① 산업자본의 규모가 커져 이를 기업외부에서 조달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자금공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②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경영자를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진척되었다. 이 때 소유자는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③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에 적절한 계약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에는 기업을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라고 부른다. 한편, 적절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회계환경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다. 회계는 기업의 주요 정보시스템인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회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자료처리기능의 상당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되고 있으며, 회계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기타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종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던 계산 및 자료처리 기능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설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는 회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의사결정과학, 그리고 시스템디자인 등에 관한 광범위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회계담당자는 기업의 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현재보다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회계담당자는 정보제공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회계문제에 접근해야만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셋째, 회계가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간의 상품이동뿐만 아니라 국제자본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간에 자본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기업에 관한 재무자료의 대부분이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고 있는데, 만일 나라마다 상이한 회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곧 국제간 자금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창설되었고, 여기에서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각 나라에서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간의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각 나라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분쟁의 상당부분이 회계처리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는 정부보조금의 과다지급, 국제간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 외국기업 및 국제간 거래에 대한 과세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회계처리와 상대 국가의 회계관습 및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셋째, 전문가로서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회계담당자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상을 기록, 분류, 요약, 전달하고 해석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점차 회계전문가에게 이러한 협의의 기능에서 벗어나 회계, 재무, 기타 모든 분야의 영역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종합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회계법인 수입의 상당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이 비감사업무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내부통제 전문가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회계담당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여 회계기록, 자산보호 등에서 오류나 부정이 발생하지 않고, 경영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담당자의 기능은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강조된다. 특히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감소, 대형사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도 특정 개인의 영리추구 수단, 즉 사적 관리수단이 아닌 공적 관리도구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회계보고서는 기업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

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간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데, 회계보고서로 인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들만이 이익을 얻는다면 회계보고서의 정보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회계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범규 이전의 보다 엄격한 직업적 규범인 것이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이와 고객의 이익보호라는 책임 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담당자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의 도입으로 기업내에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도 특정 이해관계자, 특히 경영자나 당해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희생해도 좋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4. 회계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

앞에서 제시한 회계학 교육의 목표와 회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회계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계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교육내용의 개선과 교과과정의 개선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1) 교육내용의 개선

회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회계학 교육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단순히 회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회계학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학, 특히 재무관리 및 투자론은 물론이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계량경영분석, 통계학, 경제학, 그리고 기업경영의 외생변수로서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 법규인 상법, 세법 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법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활동 상당부분이 상품, 자본, 기술 및 용역의 국제간 이동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근래에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전문가들도 국제 상관습과 국제적인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국내에는 없는 상관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적절한 회계 처리도 불가능해지고, 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회계의 대상이 되는 상관습과 금융상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금융, 건설 등의 특정산업이라든지 정부, 학교 등의 비영리기관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계적 관심의 폭은 크지 못하다. 회계가 사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회계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겠다.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학 교수들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전산에 관련된 과목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기술의 가치와 효능을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슬기롭게 이용한다면, 회계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회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회계담당자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통제와 관리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의 강화로 조직내 정보유통시스템의 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와 기업윤리에 대한 교육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회계담당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교수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례를 개발하고,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 최고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시시켜 최고경영자가 상당한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

회계학이 더 이상 회계전문가만을 위한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계의 기본 개념과 원칙은 일반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정확히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 속의 회계학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더욱 보편적으로 이용될 때 회계학의 위상이 제고되고 회계담당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더욱 보편적인 학문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회계용어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하도록 회계용어를 개선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이해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회계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존하는 회계원칙이라든지 회계실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실제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렇다면 현재 왜 그러한 대안이 채택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해석을 곁들여야 한다. 회계실무에 기초를 둔 한국적 회계학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무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 교과과정의 개선

회계학 교과과정의 개선문제를 검토해보기 전에 우선 회계학이라는 학문의 인지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구태의연한 부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지 않는더라도 회계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학문적인 분위기를 풍기도록 학과명칭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회계정보학과라든지 정보회계학과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항을 반영하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에서 오랜 연구 끝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 1>의 교과과정을 보기로 교과과정 개선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계열교양으로 회계, 경영, 경제, 전산과목이 각각 하나씩이 있다. 전공필수 14과목 중 회계과목이 8과목인데, 이는 재무회계 3과목, 관리회계 2과목과 전산회계, 세무회계, 회계감

<표 1> 회계학과 교과과정의 예시

학년	구분	1 학 기	2 학 기
1	교양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경영학총론	전산학개론
2	필수	경영통계학 중급회계 I 상법 I 재무관리	전산회계 중급회계 II 원가회계 세무회계 I
	선택	계량경영분석 미시경제학 전산처리 응용	투자론 거시경제학 상법 II
3	필수	고급회계 관리회계 마케팅관리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인사관리
	선택	세무회계 II 비영리조직회계 국제회계 생산관리	세무회계특론 고급관리회계 경영분석
4	선택	E. D. P. 감사 회계학세미나 I	경영정책 회계학세미나 II

사, 회계정보시스템 각각 1과목씩이다. 나머지는 경영학이 3과목, 상법, 통계가 각각 1과목씩이다. 전공선택 17과목은 회계과목이 8과목과 기타 과목이 9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과과정의 미흡한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① 전공필수가 2학년과 3학년에 너무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3학년이 되면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전공필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점이 우려된다.

② 회계정보의 산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산출된 재무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도 우려된다. 이도 역시 공인회계사 시험이 이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회계학도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회계이론이나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교과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③ 윤리교육이라든지 내부통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과목이 없이 다른 과목 예를 들면 회계감사 등에서 강조하여 교육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한 과목 정도는 별도로 배정했으면 한다.

④ 국제사회의 이해에 대한 과목의 보충이 필요하다. 국제회계 하나만으로 이를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각 과목의 교육내용일 것이다. 각 과목에 대한 표준 강의계획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회계학 교육은 이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의 사회적 위상이 아직도 높지 못함을 감안할 때, 회계학 교육의 방향은 먼저 회계담당자들이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회계학 교육은 회계에 직접 관련된 과목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도 상당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이용, 국제적 안목 배양, 다양한 상관습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 고취, 그리고 윤리의식 함양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개선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회계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회계담당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될 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송인만/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 회계제도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회계원리』, 『중급회계』,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있고, "The 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 of SFAS No. 33 Income Disclosures"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